

요양보호시설 입소 과정을 통해 본 모녀관계 경험연구

Study on the Experience of Mother–Daughter Relationship through the Process of Admission to Nursing Care Facilities

서승희*, 김민지**

선문대학교 통합의학과 가족상담*, 선문대학교 신학순결학과**

Seung-Hui Seo(shs8487@hanmail.net)*, Min-Ji Kim(neojinha@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치매어머니의 요양보호시설 입소과정을 통해 중년기 여성의 모녀관계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치매어머니가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중년 여성 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개별적인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Colazzi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분석한 결과 17개의 주제묶음과 6개의 하위범주,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치매어머니가 요양보호시설 입소과정에서 모녀관계가 극적으로 역전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치매어머니의 요양보호시설 입소과정에서 아들보다 딸이 치매어머니의 돌봄과 관리에 주체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치매어머니의 요양보호시설 입소 과정에서 급격한 모녀관계 변화, 나아가 가족관계의 전환으로 우울증과 불안, 상실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시설 입소가족을 위한 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요양보호시설 | 모녀관계 | 치매어머니 | 돌봄경험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 of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among middle-aged women in depth through the process of admission to nursing home facilities of their dementia mother. For the purpose, 8 middle-aged women whose dementia mothers were admitted to nursing care facilities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 and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based on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Colazzi, 3 categories, 6 sub-categories, and 17 subject bundles were derived.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was dramatically reversed in the process of mother’s admission to the nursing care facilities. Second, in the process of dementia mother’s admission to the nursing care facilities, it was confirmed that daughters rather than sons were in an independent position regarding care and management. Third, in the process of dementia mother’s admission to the nursing care facilities, it turned out that the entire family experiences depression, anxiety, and feeling of loss due to a sudden change in mother–daughter relationship as well as further transformation in family relationship, suggesting that there is a need to operate education or consultation programs for the family members to help them accommodate and deal with the sudden change.

■ keyword : | Nursing Care Facilities | Mother–daughter Relationship | Dementia Mother | Care Experience |

I. 서론

한 연구소에서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이 남성중심의 시대에서 여성중심의 친정으로 옮겨가 신모계사회가 되었다는 분석을 제시하였다[1].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고소득 전문직 여성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처가에서 맡게 되어 여성을 중심한 가족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모녀관계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모녀관계는 동성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면서 같은 여성이기에 심리적 거리감이 거의 없고 밀착되는 경우가 많아 모자관계나 부자관계에 비해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부자관계가 육체적인 학대나 경쟁, 증오 등 단순한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모녀관계는 관계중심적인 여성 부모와 자녀라는 특성 때문에 동일시가 쉽게 일어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등 복잡다양하게 나타난다.

모녀관계는 딸의 자아정체성을 완성하는 중심축으로 어머니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며[2]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허용된 성격형성과 성역할을 학습하며 내면화한다[3]. 딸에게 어머니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울이자 사회적 성역할을 배우게 되는 창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모녀관계는 딸의 성장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딸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육체적 노동을 분담해주고 심리적 위안도 할 줄 아는 존재가 된다. 모녀는 든든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점점 친구와 같은 수평적 관계를 가지며 남성 중심적 사회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동료 및 여성으로서의 동일감을 갖게 된다. 더불어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정서적 경험은 어머니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알게 되어 충성심 높은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딸은 결혼과 함께 어머니를 떠나게 되지만 거주하는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모녀관계는 부자관계에 비해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최근의 경향에서 분석된 것처럼 딸이 결혼 후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모녀관계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욱 밀착되고 있다.

그러나 사랑과 헌신의 주체였던 어머니가 갱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면 현실적으로 딸이 어머니를 모실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부모세대 또한 유산상속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 아들을 중심으로 놓게 되고 경제적인 부양 등도 아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돌봄이 하루 종일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딸은 어머니를 직접 모시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수궁하기까지 많은 고뇌와 갈등을 경험한다.

이렇게 모녀관계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라 관계가 변화되면서 의미를 재정립하는 특성이 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모녀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양적인 연구로 진행되거나 딸의 생애 중요사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모녀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러한 변화를 모녀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에 대한 경험연구가 부족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모녀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모녀관계가 가장 역전적으로 일어나는 어머니의 노년기에 딸이 어떠한 모녀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치매어머니를 둔 딸이 발병부터 요양보호시설 입소까지 진행하면서 모녀관계에서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모녀관계와 관련하여 어떻게 부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모녀관계 개념과 특징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평생 지속되는 관계로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로 개인의 정체성은 물론 성격과 가치관 등을 결정하는데 바탕이 된다. 이러한 관계는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면서 자녀의 모델로서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4]. 특히 모녀관계는 딸이 어머니를 보고 적절한 성역할을 학습하게 되어 성역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자기평가는 물론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준다[5]. 아버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회적 활동, 즉 일에 중점을 두는데 어머니는 가족의 육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가족을 배려하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성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6]. 이러한 어머니의 특성이 딸에게 이어져 관계 친화적 특성을 가지게 되며 딸은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성역할을 학습하였으며 관계를 중시하는 가족 내 역할을 학습한다.

Chodorow[7]은 모녀관계와 부자관계를 비교하면서 부자관계에 비해 모녀관계가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아들은 자신과 다른 성을 가진 어머니를 인식하면서 여성성과 다른 남성성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비해 여성은 어머니와 같은 성인 자신을 인식하면서 어머니를 애착의 대상이자 자신의 롤 모델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모녀관계의 지나친 밀착은 딸의 발달과업인 일과 사랑을 방해할 수도 있다. Surrey[8]은 모녀관계에서 공감과 애정에 기반한 관계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면서도 어머니가 딸을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고 정서적 친밀감의 대상으로 대하면서 분리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딸의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되었다. Kaplan[9]은 여성은 관계적 자아 정체성을 가지면서 충분히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녀는 부모와 분리되고 개별화를 성취해나가지만 모녀관계는 관계 속에 자율성을 획득하는 여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어머니와의 애착관계 속에서 분리되지 않아도 개별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은 가부장적 가족체계를 가지고 있어 어머니와 딸은 아버지의 권위에 예속되어 불평등과 차별을 당하여 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전통가족은 핵가족체제로 변화되었으며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 또한 일방적인 권위구조에서 다양화되었다. 특히 여성의 교육기회가 증진되고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부자관계 중심의 가족구조는 모녀중심의 가족으로 변화되었다[10][11].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국 사회의 모녀관계에 대한 연구 또한 증가되고 있다. 황은경[12]은 중년기 비혼 딸의 어머니와의 정서적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에서 모

녀간 정서적 관계에 있어서 엄마와 딸이 서로 힘이 되어 주고, 딸이 엄마에게 성취감을 주는 사이는 더 없이 좋은 관계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밀착된 모녀관계는 성장 후에도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류민영[13]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대관계를 연구하였다. 서울, 경기, 대구, 대전 등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10년 이상 부부 중 한 사람이 40세 이상인 중년기 부부 222쌍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지원을 받는 것이 동시에 높은 경우 긍정적인 세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녀관계는 정서적 지원 수혜와 병간호 등 신체적 지원 제공이 높은 경우 양가형에 속하여 상호작용 빈도와 지원교환이 높게 나타났다.

남순현·권정례[14]은 최근 온라인 사용 활성화로 변화하는 모녀간 온라인상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온라인 모녀관계의 발달은 온라인 소통 회피기, 온라인 소통 탐색기, 온라인 소통 증폭기, 온라인 소통 안정기로 진행되어 갔다. 특히 온라인 관계에서 미혼 여성의 어머니와의 친밀감은 상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이해와 배려인 반면 기혼여성의 어머니와의 친밀감은 기혼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서 어머니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에서 온라인 소통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김은정[15]은 모녀관계가 얼마나 딸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내러티브 연구로 깊이 있게 연구하였다. 생애의 전환기인 중년기를 맞이하여 엄마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경험은 새롭게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모녀관계에 얽매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추구하지 못했던 미분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원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정서적 애착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아정체감과 개별화, 자아분화 등의 과업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상윤[16]은 아버지 죽음 이후 중년 기혼 딸이 경험하는 모녀관계를 연구하였다. 아버지 죽음 이후 중년 기혼 딸은 모녀간 융합되어 있던 관계를 분리시키고, 서로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모녀가 정서적 친밀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렇게 회복된 모녀관계를

통해 중년 기혼 여성은 심리적 안정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고 현재 핵가족에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물리적으로 결혼을 통해 딸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정서적으로 딸을 분리하지 않고 확대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 내 여성의 역할수행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긴밀한 관계이지만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연구들이 시도되었지만 딸의 결혼, 아버지의 죽음 등 모녀관계를 둘러싼 외적 변화에 주목하여 여러 생애사적 변화에도 모녀관계가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연구결과가 많았다. 이에 본 연구는 모녀관계의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모녀관계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치매로 인해 어머니를 요양보호시설에 입소시킨 딸의 경험을 통해 모녀관계의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은 쾰프(A.F.Comte)의 ‘현상의 자율성’ 사상을 브렌타노(F.Brentano)가 있고 후설(E.Husserl)이 이어 창시하였다. 후설은 지금까지의 내면의 속성이나 본질을 쫓아오던 관념적인 개념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인간이 몸소 살고 있는 세계, 즉 외현된 ‘현상’ 그 자체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17]. 후설의 현상학의 기본은 ‘사물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며 경험의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다[18]. 인간의 외로움, 불안, 애도, 통찰, 반성, 이것들은 다른 어떤 것들로도 대체할 수 없는 ‘현상’이다. 현상학은 참여자의 직접 기술에 의존하고, 연구자의 선 이해를 괄호 속에 묶어두는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를 필요로 한다. 현상학적 환원은 괄호 치기(bracketing), 배제(ausschaltung) 또는 판단 중지(epoche)를 의미하며 연구자의 이론적 편견이나 선지식이 참여자의 기술내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19]. 이에 본 연구는 대상자가 진술한 맥락 속에 들어 있는 사실적인 본질구조와 의미를 알고자 한 Colaizzi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Colaizzi[20]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 중 개인적인 진술 보다는 공통적인 진술을 묶어 단계적으로 추상화시켜나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참여자의 확인을 통하여 연구자가 분석한 맥락적 의미가 왜곡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검증의 과정을 거쳐 연구자의 선입견을 여과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Colaizzi의 분석방법은 연구 참여자 개인 경험의 속성보다는 연구 참여자 전체의 경험에 관한 속성을 도출해 내기 때문에 개입서비스나 이론개발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21].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요양보호시설에 모신 딸의 경험에 관한 연구로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 요양보호시설 입소, 딸 등의 요소를 충족하는 연구 참여자를 찾아야 했다. 주위에 많은 사례가 있었으나 어머니를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부담감과 주변의 시선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이에 개인적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하여 연구 협조를 요청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연구 주제와 목적, 연구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소개를 부탁하는 눈덩이표집방식을 취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코드	연령	결혼유무	진단	입소 기간
A	48	유	2006	22개월
B	54	유	2014	30개월
C	67	유	2017	6개월
D	61	유	2013	60개월
E	55	유	2013	47개월
F	49	유	2015	10개월
G	61	유	2017	7개월
H	57	유	2011	37개월

3.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당 면담은 1~3회였고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은 직장을 다니는 참여자들이 퇴근 후나 공휴일 등 쉬는 날 편한 시간을 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주로 연구자의 상담실이나 근무지의 휴게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1차면담에서는 참

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고 되도록 가볍게 진행하였으며, 참여 도중 중단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으로 참여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 임했다. 녹취한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 들으면서 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전사하였다.

전사한 내용은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두 명의 연구자와 함께 분석하였다.

표 2. 치매어머니의 요양보호시설 입소과정을 통해 본 모녀관계 경험

범주화	하위범주	주제
1. 요양보호시설 입소 전 모녀관계	1) 성장과정의 모녀관계	(1)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았음
		(2) 아들과 차별되게 키운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음
		(3) 혼자 자녀를 키우신 어머니가 애뜻하고 고미움
	2) 결혼이후 모녀관계	(1) 어머니와 가까이 살고 있어 자주 만남
(2) 아들은 멀리 있어 자주 오지 못함		
(3) 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의 부담감		
2. 요양보호시설 입소 과정의 모녀관계	1) 치매 인지	(1) 나이가 많아서 그런거지 치매를 인정하기 싫음
		(2)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
	2) 입소 결정	(1) 자신이 요양보호시설 입소를 주도적으로 진행함
		(2) 요양보호시설 입소에 대한 가족들의 의견이 같음
	3) 입소 초기	(1) 요양보호시설 입소로 어머니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음
		(2) 어머니와 달리 자신들은 아픈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함
		(3) 슬픔, 우울, 자책감으로 괴로워함
		(4) 요양보호시설에 어머니를 두고 오면서 여러 가지 감정변화를 경험함
3. 요양보호시설 입소 후 모녀관계	1) 현재	(1) 어머니를 자주 찾아가야 하는 책임감이 생김
		(2) 어머니의 요양보호시설 입소를 수용하고 더 만나려고 함
		(3) 다른 자녀들보다 자신을 더 알아보는 어머니로 인해 뿌듯함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치매어머니의 요양보호시설 입소과정을 통해 중년기 여성의 모녀관계 변화가 ‘어떻게’ 경험하는지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연구로 전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7개의 주제목음과 6개의 하위범주,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3개의 범주는 ‘요양보호시설 입소 전 모녀관계 경험’, ‘요양보호시설 입소 과정의 모녀관계 경험’, ‘입소 후 모녀관계의 변화’이다.

1. 요양보호시설 입소 전 모녀관계 경험

1.1 성장과정의 모녀관계

·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았음
 참여자들은 어려서 농사일과 집안일 등을 자발적으

로 도우며 다른 자식들에 비해 걱정을 덜 시켜드렸으며, 어머니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딸인 자신을 사랑하셨다고 회상하였다.(참여자 A, D, E, F, G, H)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안 하시고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자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큰 속은 안 썩여 드린 것 같고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딸이죠.(F)

-엄마는 제 생일 때마다 떡을 해오셨어요. 제 생일이 겨울인데 그때 버스타고 머리에 이고 그러고.. 집에서 찌가지고 왔어요. 눈 펄펄 오는 날 머리에 이고 오셨던 기억이 나요. 떡보다리 보자기에 써서 (G)

· 아들과 차별되게 키운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음
 반면 참여자 중 2명은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도 없어서 아들에 비해 차별받은 섭섭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재산상속 과정에서도 아들에게

만 유산을 상속하고 딸은 배제당하는 등 억울한 감정을 안고 있었다.(참여자 C,G)

- 아들, 아들, 아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살은 거지. 우리 셋 공부도 많이 못 배우면서... 그 어릴 때, 4학년 5학년 됐을 때부터 제가 밥해먹고 학교 다니고, 대우도 못 받고 일은 일대로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 다 당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한거야.(C)
- 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유산을 아들들에게 줬으니까 해야지. 재산이 많았는데 그때는 큰오빠 앞으로 다 됐었는데 큰오빠가 남자들끼리만 한다고.(G)

· 혼자 자녀를 키우신 어머니가 애뜻하고 고마움
참여자들 중 일찍 홀로 되신 어머니가 자식들을 혼자 키운 경우도 있었다. 이런 딸들은 어머니가 재혼하지 않고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지신 것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였다.(참여자 D,F,H).

- 자식이 일곱인데 아버지가 44세에 돌아가셨고 엄마가 43세에 혼자 되신 거예요. 엄마가 7남매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키우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엄마가 젊은 나이에 혼자 살아온 것도 불쌍하고 그래도 자식들 안 버리고 끝까지 살아준 거에 대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D).
- 어머니 36세에 혼자되셨는데 평생 건강하고 사납고 나한테는 엄마의 사나운 게 안전 보호망 같은 거예요. 든든했어요. 엄마가 젊어서 과부 되가지고 그렇게 중년이 지나 노년이 되도록 누구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산 것이 마음 아프더라고요.(H)

1.2 결혼 이후 모녀관계

· 어머니와 가까이 살고 있어 자주 만남

참여자 8명 중 4명은 결혼한 이후에도 어머니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거주하며 교류하며 살았다. 직장의 위치를 선택할 경우 엄마와 가까운 곳으로 선택을 했으며 그럴 수 없는 상황에는 어머니를 집 근처로 모시고 와서 가깝게 살았다.(참여자C,E,F,H)

- 결혼하고 쪽 어머니랑 이웃에서 살면서 아이들도 키워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쪽 함께 살았고 한 3년, 제가 먼저 지방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3년 뒤에 내려오셨어요. 저희 집하고 5분 거리 있는 곳에 어머니는 혼자 계시고 제가 자주 다니면서 돌봐드리고 했어요(E)
- 저는 엄마와 사이가 좋았어요. 워낙 자주 뵈고 일주일이 멀다하고 가서 뵈고 하니깐 어디 편찮으시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약을 가져다 드리고 병원에 가서야할 때는 모시고 다니고 그랬지요(F)

· 아들은 멀리 있어 자주 오지 못함

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나 가까이 살았던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아들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아들이 며느리와 동행을 하지 않고서는 어머니를 뵈러 오지 않거나 거리가 멀다, 일이 많아서 힘들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매우 적은 횟수로 어머니를 뵈러 왔다고 회상하였다.(참여자 C,F,G)

- 자식이 각자 살다보면 시간이 어려워져 자주 못가는 거야. 회의를 했어. 순번 정해고 하다 보니 처음 한 달 정도는 이어지는 것같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딸들은 계속 되는데 아들들은.. 그냥 한 달에 한 번도 못 오는 거여. 두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석 달에 한 번 오는 거여. 아들들은 자기는 안보면 끝이여(C)
- 서운한 게 뭐냐면 기본적인 의무는 해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 못 와요. 자기 생활하면서 그래도 계절이 바뀔 무렵에 일년에 4번은 와야지요. 저는 최소한 그 정도는 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F)

· 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의 부담감

반면 참여자들 중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살았던 참여자들은 반대로 자신의 방문이 혹여 어머니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자주 찾아가지 못했다. (참여자 B,C,D,E,G,)

- 집으로 너무 자주 가면 우리가 올케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인거죠. 올케가 한참 어린데 우리가 자주가면 올케가 혹시나 자기가 못해서 우리가 자주오나 오해할까봐 자주 못가고, 또 안가면 관심 없어서 안 오나, 그럴까봐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안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솔직히 그랬어요.(B)
- 여태까지 시누가 여섯이지만 우리는 한 번도 친정에 가서 하루저녁도 잔 적이 없어요. 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가도 2~3시면 다 각자 집으로 가요. 목기까지 설거지 다 치워주고 와요. 엄마가 계셨지만 올케에게 절대 폐를 안 끼쳤어요. 우리 형제가 다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더 어려워질까봐 더 못했어요.(D)

2. 요양보호시설 입소 과정 경험모녀관계 경험

2.1 엄마의 치매를 인지

· 치매를 인정하기 싫었음

참여자들은 어머니가 치매 현상을 보여도 인정하기 싫어하였다. 기존의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는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지 못하는 경험을 하였다. (참여자 A,D,E,F,G)

- 저희 엄마는 예의바르시고 욕 할 줄도 모르고 얌전하셨던 분인데 우리 애 친구들이 놀러 와도 좋아하시던 분이 시끄럽다, 왜 남의 집 와서 이렇게 어지르냐 너희 집 가서 놀아라 막 그러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예전말로 70넘으면 노인네들 고약해진다더니 왜 사람이 신경질적이지...치매라고는 생각 안하고 좀 우울하신가? 하는 정도.(a)
-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시네. 연세가 80이 넘으시니까 그렇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자주 어머니가 배회를 한다고, 저에게 어머니가 저기 버스 승강장에서 우두커니 앉아계셔서 환참을 앉아계셨다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냥 그 정도지 가족을 몰라보거나 그렇게는 안하니까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e)

·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

참여자 어머니가 치매진단을 받았을 때를 “땅이 꺼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였다. 평생 의지하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더 이상 어머니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참여자들은 기존의 모녀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경험하였다.(참여자 C,H)

- 오죽하면 부채에다가 써놔터라고.. 하루 종일 더위 죽었는데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날아오는 잠자리 한 마리 뿐이라고.. 부채에다가 무슨 시 한 문장 마냥 그렇게 써놔터라고, 자기는 항상 답답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집에서..(C)
- 치매라는 걸 알았을 때 땅이 꺼지는 느낌이었죠. 치매가 이렇게 오는구나. 진짜 땅이 꺼지는 느낌..(H)

2.2 요양보호시설 입소 결정

· 자신이 요양보호시설 입소를 주도적으로 진행

참여자 어머니의 증상이 더 심각해져서 자택에서의 생활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자 요양보호시설 입소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반대하는 자식들이 있을 경우에는 진정으로 어머니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어머니의 요양보호시설 입소를 추진하였다.(참여자 A,F,H)

- 자식들도 엄마가 급게 치매가 왔기 때문에 잠깐잠깐 보는 것은 문

제가 되지 않죠. 좋은 감정만 갖고 있었고 그런데 같이 사는 자식은 아니니까.. 계속해서 엄마와 부딪치고,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것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제가 다 했는데 어느 자식에게도 엄마를 모시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지요.(A)

- 같이 사는 아들 입장은 어머니를 선뜻 요양원에 모시겠다 이 말 못하거든요. 본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결정을 제가 했죠. 해가지고 처음에는 서운하지만 여쭙 수 없는 거고, 그 누구도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따라줬죠. 결국에는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F)

· 요양보호시설 입소에 대한 가족들의 의견이 같음
참여자 어머니를 잃어버려 다시는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모시고 사는 며느리와의 고부갈등이 심각해져서 요양보호시설 입소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참여자 E,G)

- 자식들이 동의를 처음에는 못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고 안스럽다고, 제가 직장생활 하니까 그럼 일정기간 동안 돌아가면서 모셔보다가 정 안되겠다 싶을 때 시설에 모시자 하고 한 달 모시고 한 달 쉼만 모셔보자 했는데 둘째 언니가 한 달 모시는 동안 어머니를 2번이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언니들이 두 달도 채 못 모셨어요, 직접 모셔보니까 의견이 같아졌어요.(E)
- 제가 십자가를 진거죠. 울케하고 상의해서 뒤는 내가 감당하겠다. 언니들은 반대하는데,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집에서 모셔라. 언니들은 속상했었어요. 그런데 모실 형편들은 안 되고.. 더 우기지 못하고, 그래서 합의하에. 아들들은 더 하죠. 못 모시니까 반대를 못했지요.(G)

2.3 요양보호시설 입소 초기

· 요양보호시설 입소로 어머니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
참여자 어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시다가 잘못된 일이 발생할까봐 항상 노심초사하셨던 마음이 요양보호시설 입소로 인해 안전한 곳에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고, 어머니의 치매증상이 완화되면서 더이상 자녀들과 사이가 악화되지 않음에 안심할 수 있었다. 또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매회 식사 케어를 해주며 꾸준히 먹어야 하는 약물 복용을 규칙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되었다.(참여자 A,B,,E,H)

- 그전에는 일하다가도 엄마가 없어졌다고 하면 찾으러 가고.. 엄마

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실종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진 것이 저에게는 큰 변화예요.(A)

- 매일매일 제가 부딪치다가 나중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직장생활 하나까 더 힘들었거든요. 정말 안심이 안 되니까. 낮 시간에도 밤 시간에도 혼자 계시니까(E)

· 어머니와 달리 자신들은 아픈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상함

참여자들은 일찍 홀로 되어 굶은 일 힘든 일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을 하셨으며 많은 자식들을 한명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키우셨는데 아픈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한 사람의 자녀가 없다는 것에 대해 입소 초기에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을 크게 느꼈다.(참여자 A,B,D)

- 어려서 너무 배가 고파서 우니까 맨날 업고 있었다는거여. 엄마는 이제 자식들이 안쓰러우니까 당신이 배불리 못해준 게 죄스러우니까 자식들을 맨날 업어준 거예요. 우리 손녀딸 오면 잘 업어주줘요. 엄마 생각해서. 우리들 주느라, 밥 같은 것도 조금씩 드시고 나는 다 먹었다 그러시고. 그전에는 그런 거 몰랐지요.(B)

- 엄마 모셔다 드리고 돌아서서 정말로 울었어요. 왜 엄마는 일곱을 키우느라고 애썼는데 왜 일곱이 하나같이 모시지를 못 하는가 해서 너무 원망스럽고 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D)

· 슬픔, 우울, 자책감으로 괴로워함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치매증상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가 입소 초기에 몸은 편안해졌지만 온전한 휴식은 취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어머니에게 잘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들이 후회되며, 치매증상으로 이상행동을 하시던 어머니를 돌보면서도 일상생활을 바쁘게 살아내던 삶에서 어느 순간 활기가 사라짐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A,E,F,H)

- 처음 한 일 년은 제가 좀 많이 활력이 떨어졌어요. 되게 시간이 많아졌는데 일을 하다가 일을 놓은 사람처럼 여전히 직장에서는 역할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계속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생활이 생기가 없고 남편한테도 우울한 얼굴로 많이 있고.(E)

- 마음 아팠죠. 잠도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려면 엄마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가 없어요. 그럼 음식물 섭취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일주일에도 23번 시간 나는데로 갔어요. 가도 눈물 바람, 안가도 눈물 바람.(H)

· 요양보호시설에 어머니를 두고 오면서 여러 가지

감정 변화를 경험함

참여자들은 입소 전 오랜 기간 어머니의 증상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소진되어있는 상황이었으나 시설에 입소하기를 거부하시는 어머니를 요양보호시설에 버리고 온 것 같은 무거운 마음과 부모도 모시지 못하는 자식이 된 죄송함으로 어머니를 요양보호시설에 모셨다는 사실을 주변 지지들에게조차 말하는 것이 어려워 이중으로 힘들을 견뎌야 했다.(참여자 A,C,D,E,F,G)

- 요양원에 가면 사람들이 그리워서 그러는지 누구야 누구야. 이게 진짜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 이게 지옥이 따로 없구나. 그런 느낌 때문에 거기만 다녀오면 나는 죄인이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C)

- 안됐고 존경스럽고 그렇게 하고 항상 고맙고 가서 보면 애처롭고 돌아서면 눈물나고, 엄마가 붙잡고 “안가면 안 되냐? 오늘 빠지고 안가면 안 되냐?”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럴 때 돌아서면 어렵지요 가슴이 아프지요.(D)

3. 입소 후 모녀관계 변화

3.1 현재

· 어머니를 자주 찾아가야하는 책임감이 생김

참여자들은 다른 자녀들이 시간을 내어 어머님을 뵈러 오지 못할 때에는 가까이 있는 자신이 한 번이라도 더 가보면 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머니를 뵈러 가야 마음이 편했고, 어머니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심을 확인하는 사진을 찍어 가족들과 공유하였다.(참여자 B,D,F,G,H)

- 5일 있다 가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왜 이제 오냐, 손을 붙잡고 엄마 가슴에 손을 대고 왜 이제 오냐(D)

-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한 두 번이라도 더 보게 되는 거죠. 자주 못가면 절쩍지근해요. (F)

· 어머니의 요양보호시설 입소를 수용하고 더 만나려고 함

참여자들은 어머니의 요양보호시설 입소가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자녀 사이의 갈등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내린 입소결정을 수용하였으며 어머니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어머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가족모임을 하면서 어머님을 중심으로 모이고자 하

었다. 자녀들도 어머니도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참여자 E,F,G)

- 저희는 어머님 집에 오시면 사위도 다 돌아가면서 노래해요. 노래 자랑해요. 너무 행복해하시니까, 같이 계실 때 행복하고 가족이 율타리가 있어서 나는 보호받고 있다는 안심을 시켜 드리는게 최고의 케어인 것 같아요. 시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이틀 시간 내는 거 삼일 시간 내는 거니까 가능하지 그게 일상이 되면 여전히 빠격거릴 것 같아요.(E)
- 시설이 좋아서 한 달에 한 두 번 가는 것보다 자주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데 내 자식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계실 때 얼굴 한번이라도 더 보는 게 제일이야(G)

· 다른 가족보다 자신을 더 알아보는 어머니로 인해 뿌듯함

참여자들은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참여자는 기억하고 알아보고, 다른 자녀들이 있어도 참여자만을 찾는 모습을 보며 그래도 엄마가 끝까지 자신을 찾는 것이 감사하고 뿌듯함을 느꼈다.(참여자 D,E,F)

- 내 딸인가? 저한테만 그렇게 하시고 다른 딸들에게는 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출근하고 언니들이 엄마 모시고 와 있으면 하루종일 저만 기다리신데요. 언니들이 있어도, 계속 우리 딸 어디 갔냐고 기다리신데요.(E)
- 자식들이 가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데 저는 알아봤어요. 왜냐면 끝까지 저는 계속 봤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은 딸이라는 걸 알고 저에게는 화를 내지 않으세요. 제가 가면 오히려 더 저를 반기고 그러다 보니까 서운함을 느끼는 자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F)

V. 결론

본 연구는 치매어머니를 둔 중년여성이 치매어머니의 요양보호시설 입소 과정에서 모녀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그 과정과 의미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요양보호시설 8곳에 위탁된 부모를 둔 기혼여성 8명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했으며, 심층면접을 통해 17개의 주제를 조직화하고 6개의 하위범주와 ‘요양보호시설 입소 전’, ‘요양보호시설 입소 과정’, ‘입소 후 변화’의 3개의

범주로 통합하였다.

[표 1]로 정리한 연구결과를 보다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치매어머니 요양보호시설 입소를 통해 본 모녀관계 경험

연구결과를 모녀관계 경험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어머니 요양보호시설 입소과정에서 모녀관계가 극적으로 역전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입소 이전에는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돌봄을 받는 관계였다가 입소 이후에는 어머니를 책임지고 돌봄을 주는 관계로 모녀관계가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입소 이전에는 일반적인 모녀관계와 같이 어머니에게 많은 사랑을 받거나 아들보다 적은 사랑을 받은 것에 섭섭해 하는 등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 딸의 자리에서 모녀관계를 경험하던 연구 참가자들은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고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자 처음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치매를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치매판정을 받으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였다.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용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후 어머니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요양보호시설 입소를 결정하고 추진하였으나 어머니 입소 이후에는 딸로서 어머니를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과 더 이상 자신을 돌봐줄 어머니가 없다는 부

제의 경험으로 슬픔과 우울, 상실과 불안 등을 느끼며 힘들어 한다. 그러나 이미 중년기에 들어선 딸은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더 잘 돌보고자 노력하는 등 어머니를 딸처럼 돌보는 관계를 수용하고 모녀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든 어머니와 중년기가 시작된 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경험하는 변화이지만 치매발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시설 입소라는 상황 속에서 보다 극적으로 모녀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치매어머니의 요양보호시설 입소과정에서 아들보다 딸이 치매어머니의 돌봄과 관리에 주체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 중년기 이후 모녀관계가 더욱 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어머니는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 치매발병, 치매진단, 돌봄의 한계발생, 입소결정, 입소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부모의 봉양과 돌봄은 아들의 몫으로 생각되어 왔다. 아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가까이 살면서 부모를 보살피는 것은 물론 요양보호시설을 선택하고 입소하는 등 부모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담당해왔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치매발병과 진단, 요양보호시설 선택과 입소 결정 등에 자신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회상하였다. 이는 치매어머니의 경우 돌봄이 많이 요청되는 상황이기에 가정 내에서 돌봄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인 딸이나 며느리가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치매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딸이나 며느리가 담당하게 되는데 모녀관계가 고부관계보다 더 가깝게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어머니가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하기까지의 여러 과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아들이나 며느리보다 딸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매어머니의 요양보호시설 입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모녀관계, 나아가 가족관계의 전환을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시설 입소가족을 위한 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 치매어머니의 가족을 위한 개입 방안으로 단계별 문제행동과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가족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경감 또는 해결해 주기 위하여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가족지지모임과 집단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가족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치매가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치매시설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치매가족을 관리하기 위한 제안이 있었으나[22] 가족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노년기 가족을 둔 가정의 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제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치매어머니의 요양보호시설 입소 과정 중에 딸은 어머니의 치매를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급격한 우울감, 불안, 슬픔 등을 경험하였다. 어머니의 치매를 인정하면서 기존에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주었던 어머니의 자리가 상실되고 자신이 어머니를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 주체로 모녀관계가 급격하게 전환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일시적으로 큰 감정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모녀관계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시설에 입소를 진행하면서 가족이 기존의 가족관계가 상실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다.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하기까지 극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가족관계의 전환은 부양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자책감 등을 주기 때문에[23] 노년기 부모와의 관계전환을 이해하고 달라지는 가족관계를 수용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자책감으로 인한 심리적 우울이나 슬픔이 심할 경우 입소가족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요양보호시설 입소 초기 가족들은 입소한 부모를 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시설을 방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의 수용과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요양보호시설을 방문하지 않게 되고 심리적인 문제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된다. 가족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말에 입소 초기 가족을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수습하는데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관찰되었듯이 모녀로 이루어진 치매환자와 보호자의 경우에 그 정신적 피로감과 죄의식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치매어머니를 둔 보호자로써의 딸에게 상당한 정신적 부담감을 지워 일상 생활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시설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가족지지모임과 집단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가족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들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치매의 발견이 늦다. 이것은 고령인 부모님들의 나이를 감안하여 으레 그러려니 하는 일종의 '무심함'에서 비롯된다. 한때 사실 '무심함'이라 표현했지만 이것은 '정보가 없음'과 다르지 않았다. 치매의 임상적 예후들은 많이 파악되어 있었지만 그에 대한 홍보나 전달은 생각 외로 제대로 진행되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보호자가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인된 치매의 조기발견 평가표 등의 개발이 필요하고, 해당 평가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그리고 배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은 치매의 조기발견 기회를 확대하여 치매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회들의 확장을 위해 정보의 교류 및 교육이 상시로 이루어지는 치매상담센터 등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모녀관계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의 폭이 확대되고 요양보호시설 입소를 결정한 가족에 대한 이해 또한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1] 100세시대연구소, '100세시대 행복리포트,' 47호, <http://www.cstimes.com/?mod=nesw&act=articleView&idno=282111>, 2018.9.20.
- [2] 홍기령, "신화적 사유 속의 모녀관계,"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제1호, pp.267-294, 2006.
- [3] 정혜정, 최자영, 임정빈, "가정학 연구에 있어서 여성대상 연구의 현황,"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pp.178-183, 1996.
- [4] 김재은, *한국가족의 집단 성격과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4.
- [5] 김영희, "결혼과 가족가치관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충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 J, 제23권, pp.21-45, 1998.
- [6] Parson & Bales, Parson, T., and R. F. Bales, (Eds.).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New York: Free Press, 1955.
- [7] N. Chodorow, *Family Structure and Feminine Personality: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Front Cover, Brandeis University, 1974.
- [8] J. Surrey, "The relational self in women: Clinical implications," In J. V. Jordan, A. G. Kaplan, J. B. Miller, I. P. Stiver, & J. L. Surrey (Eds.), *Women's growth in connection: Writings from the Stone Center* (pp.51-66), New York: Guilford Press, 1991.
- [9] R. M. Kaplan, J. P. Anderson, and D. I. Wingard, "Gender differences i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ealth Psychology*, Vol.10, No.2, pp.86-93, 1991.
- [10] 김주희, "결혼초기 여성의 친족관계: 외동딸 대한 사례연구," *가족과 문화*, 제21권, 제4호, pp.95-118, 2009.
- [11] 신수진,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족주의 전통," *국 가족관계학회지*, Vol.4, No.1, pp.165-192, 1999.
- [12] 황은경, *중년기 딸의 어머니와의 정서적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13] 류민영, *중년기 기혼부부의 어머니와의 세대관계*,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14] 남순현, 권정례, "모녀관계에서 온라인상 친밀감의 변화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21, No.3, pp.395-414, 2016.
- [15] 김은정, *중년 기혼 여성의 모녀관계 경험에 관*

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7.

- [16] 박상윤, *아버지 죽음 이후 중년 기혼 딸이 경험하는 모녀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8.
- [17] 이종훈 역, *순수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3*, 한길사, 2009.
- [18] 신경림, 고명숙, 고병혜, 김경선, 김미영, 김은하, 노승욱, 노승욱, 노영희, 조명옥, 양진향,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 [19] 송재현,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사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8호, pp.379-391, 2018.
- [20]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회영,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Kaam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제29권, 제6호, pp.1208-1220, 1999.
- [21] 신경림, “질적 연구 방법의 이론,”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동계연수자료, pp.5-22, 2001.
- [22] 정화철, “치매노인 보호자의 부양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1호, pp.167-182, 2017.
- [23] 전명수, “요양노인과 가족 부양자의 특성이 부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2호, pp.274-282, 2014.

저 자 소 개

서 승 희(Seung-Hui Seo)

정회원



- 2012년 8월 : 선문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석사)
 - 2018년 11월 : 선문대학교 통합 의학과 가족상담(박사과정)
 - 2015년 3월 ~ 현재 : 충남예산 교육지원청Wee센터 전문상담사
- <관심분야> :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부모-자녀 교육

김 민 지(Min-Ji Kim)

정회원



- 2000년 8월 :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정치학석사)
 - 2010년 2월 : 선문대학교 신학과(신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신학순결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종교경험, 다문화, 다종교, 여성경험